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와 몸

이 유 진*

목 차

Abstract	III. 한국춤의 생태의식
I. 서론	1. 생태적 사고
II. 생태적 사고	2. 생태의식과 몸
1. 생태계의 개념 요소	IV. 결론
2. 종교사상과 생태의식	참고문헌

Abstract

Ecological thinking and body in Korean dance

Lee, Yu-ji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nhwa Arts School

Human body is linked with thinking. The motion of self-examination can be the driving force to change healthy and life. These causes have significant meanings in ecological society. The Korean Dance can be reinterpreted in view and ecological culture can be standpoints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This research is about ecological thinking and body which are culture foundation of the korean dance. Ecological thinking which understand a law of nature is necessary. Ecological body is a motion following natural laws. Ecological thinking is an understanding human as one part of nature ande comprehension about nature and universe.

Ecological thinking overcome individual principal and auxiliary dualism and do not distinguish human from nature. By realizing diversity, human can find out original shaple and these ecological thinking provide prospect to practice original lives. The orient ecological thinking invest with ethical properties on organic connection system of the every existent things.

*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전공 박사, 선화예술학교 강사
논문투고일: 2014. 7. 20. 심사일: 2014. 8. 20. 게재확정일: 2014. 9. 5.

The ecological thinking of the Korean Dance.

- The Korean dance have ecological wisdom in lives on nature and intrinsic consciousness on living together.
- The thinking of dance is a state of personal perfection in speculation system of eco-culture.
- Natural Korean dance have created community spirit and culture by harmony mind between nature and human.
- The Korean dance which show natural and harmony have brought about humor and interpretation which get over negative reality with mental composure by excitement mixed with pleasure and spirit.
- The manners which grant reverent tension to body and soul are attached balance rule

The ecological body of the Korean Dance

- It is a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body based on the ecological thinking.
- The movements of spirit in dance concretely seem like streams of breathing to audience and breathing are follow the transition of 'yin and yang' stream.

key words: Korean dance, ecodance, ecological body, ecological thinking

주요어: 한국춤, 생태무용, 생태적 몸, 생태적 사고

I . 서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몸을 통해, 몸의 움직임들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살려낼 수 있으며, 자신의 성찰로서의 몸짓은 건강과 삶,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치를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동력은 사회적인 모순과 노동의 힘겨움을 삶 속에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 이것이 전승되는 한국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이유진, 2014:74).

이러한 한국춤적 사유는 생태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로 재해석 될 수 있다.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독해의 주목적은 사실 혹은 원형에 의한 시대 문화의 정보전달이기 보다는 인식 전달이다.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독해는 무용을 개념 언어로 번역하여 인류 문화사적 지식 정보로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무용을 지역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혜리, 2013:43).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 전승되는 춤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한국춤은 오늘 날의 생태적

시각에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생태 문화는 전승되는 한국춤을 보는 눈이 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로 오레지나(2011a)의 연구에서 ‘에코댄스’¹⁾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무위자연과 천인합일로 대표되는 생태적 동양 자연사상의 전통에 기초한 움직임의 본질로 하며(오레지나, 2011a:42), 생태와 무용의 핵심적인 개념을 기초로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오레지나, 2011a:43)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이 생태적 관점에서 무용을 다룬 연구(오레지나, 2010, 2011a, 2011b; 박지영, 2010; 정은주, 2011; 김옥희, 2012; 임희선, 2012; 이유진, 2013)와 생태적 시각에서 한국춤을 바라보는 연구(유미희, 2002; 이유진 2010, 2014)가 지속되고 있다. 즉, 문화적 맥락에서 파생된 생태무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한국춤의 생태적 접근의 연구로 그 방향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보다 한국춤이 생태사회적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득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춤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생태적 사고와 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를 조망하는 일은 생태적 사고에 기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춤사위는 철학과 역사를 비롯한 상징이며, 생태적 움직임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생태적 사고와 자연의 이치를 따라 몸을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생태적 사고를 고찰하고 둘째, 생태적 사고와 연결되는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자연의 이치를 따라 움직이는 생태적 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II . 생태적 사고

생태사회에서는 환경과 생명문제를 단순히 겉에 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노력을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적인 노력은 생태중심주의의 철학을 요구하며,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²⁾,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³⁾ 및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⁴⁾가 등장하였고

1) 에코댄스는 오레지나(2010:56)의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로, 생태의 의미와 가치를 춤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2) 환경오염과 자원이갈만을 문제 삼는 생태주의는 피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개체론적 자연지배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경제, 과학기술을 포괄한 사회와 문화의 기본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며 생태의식(ecological consciousness)을 계발해 ‘인간, 동식물, 지구의 통일성’을 깨닫는 ‘생태적, 철학적, 영성적 접근’을 주장한다.

주요 생태학의 특성은 관계성, 다양성, 공생, 유기성, 총체성, 일원성, 공생, 지속성 등으로 정리된다.

1. 생태계의 개념 요소

생태계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조절되어 전체를 유지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나름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연결체제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물리학자 Capra, F.(1995)는 상호의존성(관계성), 재생(순환성), 협력(공생), 유연성, 다양성 등으로 설명하며, 이 다섯 가지의 성격은 인간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① **상호의존성(관계성)**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재생(순환성)**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에너지가 순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협력**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더불어 협동하려는 특성을 가지며 각기 다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한다.
- ④ **유연성**이란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조건들로 인해 정상 범위에서 이탈했을 때 정상 범위 안으로 균형을 되찾는 힘을 의미한다.
- ⑤ **다양성**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다양하게 구성된 생태계는 다양성만큼이나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

2. 종교사상과 생태의식

동양의 생태적 사고는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불교, 노장철학, 유교에 나타나는 자연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 자연을 연계하여 생각한다(조민환, 1997:21).

- 3) 사회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계층 문제를 제기,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가 인간에 의한 환경지배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지배 없는 사회에 대한 실현'을 소규모 공동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향한다.
- 4) 생태여성주의는 사회생태주의와 마찬가지로 환경위기의 원인을 사회의 지배구조에서 찾는다. 자연을 여성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여성문화를 제시해 사회와 자연을 치유하고자 한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남성중심의 전통윤리에서 배제되었던 돌봄(care), 관계, 책임 등 여성성(femineity)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궁극적 실재인 범(braman)에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주적 생명인 범과 개체적 생명인 나(atman)는 같다(梵語一如). 즉 다양각색의 자연적 존재와 인간은, 모두 궁극적 실재인 범이 서로 다른 양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환영(maya)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파악한다(Capra, F., 1995:103).

불교의 기본사상인 연기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아와 같이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깨우쳐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의미의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비유비무의 중도로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무분별지를 강조한다.

노장사상은 모든 실재를 흐르면서 변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데, 그 근본원리는 ‘도(道)’이다. 도의 참모습은 우주의 궁극적 원천인 태극의 음극과 양극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으로서, 무위(無爲)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행위이며, 위(爲)는 자연에 역행하는 인위적 행위이다. 이러한 노장철학의 통찰은 오늘날의 생태문제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인위적 행위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한다.

유교는 자연으로서 도를 중시하고, 도에 따른 생명창조의 활동은 사물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오묘한 이치인 생생불이(生生不二)로 나타난다. 인간과 우주를 포함하는 일체 만물 자체를 하나의 큰 유기적 생명체로 파악하여,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영향을 주면서 유기적 연속체를 이룬다는 ‘천인합일의 생명적 우주관’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氣)’라는 생명 에너지나 흐르고 있다.

한국의 생태사상에 대하여 박희병(2006)은 한국의 전통사상이 생태 지혜를 간단없이 보여주며, 생태 지혜란 “협소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에 따라 생명의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생지리의 근원은 태허로 존재의 근원적 일체성에 기반 하여 “무욕의 마음이 됨으로써 물아가 하나 되는 자유로운 마음상태(박희병, 2006:47), “욕심이 없는 마음”(박희병, 2006:168), 외물과 내아의 구분이 사라지고 둘이 통일된 마음 상태, 감각적 인식을 넘어선 주객 합일의 심경, 인간의 분별지 혹은 감각적 인식을 매개한 개념적 파악을 초월하는 마음의 경지”(박희병, 2006:318-319)이다. 따라서 한국의 생태적 사고는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만 추구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우주적 깨달음과 사회적 비판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희의 도가적 양생사상을 사회적 실천으로 심화시켰다고 함에 있어서, 이규보의 일상생활과 글쓰기를 통한 실천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결합하는 사상의 구체적 현실화를 꾀한 점에서 이상적 사회를 위한 실체적 사례를 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슬견설, 김시습의 생생지리, 홍대용의 인물균의 사상 등은 장자의

말물제동론, 한 대의 천인감응설, 장희익의 온생명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명현상의 동질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태적 사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생태적 사고는 개체론적 주-객 이원론을 극복하고, 물질과 정신을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깨달아야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동양의 생태적 사고는 모든 존재의 유기적 연결 구조 위에 도덕적 속성을 부여하였다. 생태적 사고는 자기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평을 제공해준다. 생태적 사고는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을 벗어나 우주적 깨달음과 사회적 비판을 결합시킴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위한 실제적 사례를 요구한다. 생태적 사고는 하늘의 이치를 모범으로 여겨 그 탐구를 통해 얻은 이치를 인간의 삶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하늘의 모범적인 이치가 자연에 내재된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자연은 탐구와 홍취의 대상이었으며, ‘천인합일’, ‘물아일체’ 등의 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유대 관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따라서 생태적 사고는 실천적 삶의 문화 기억으로 전승되었고, 한국춤의 전승은 역사적 기억, 즉 그것과 관계 맺었던 것들에 대한 지속적 기억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한국춤의 생태의식

한국춤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지속되는 역사적 연속성(시간 차원), 다른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적 개성(공간 차원), 특정 분야나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회적 공통성(인간 차원)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춤에는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와,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학적 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역동적이면서도 끈질긴 기질을 갖추고 예의의 긴장과 해학의 여유를 신명나는 흥의 몸짓을 펼쳐 왔다. 생태문화권의 사유체계에서 춤의 생태적 사고란 인격 완성의 경지이고 그것은 개인의 춤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이다.

1. 생태적 사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동양사상의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생태적 사고가 곧 생태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우리 몸에 질서가 있듯이 움직임에도 질서

가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오레지나, 2011a:48). 따라서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는 자연에 대한 동양적·전통적 세계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춤의 해학과 소탈, 방식과 여백, 절제와 무위 등의 표현은 바로 자연과 합일된 생태적 사고가 전제된다. 한국춤에서 절제는 시적이자 미학적이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만물 즉 자연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에 따라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혜리(2011)가 제시한 한국춤의 사유체계인 和(어우러짐), 解(풀어내는 행위), 中(균형 잡음·규칙과 규약의 준수)는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와 실천으로 연결된다.

和(어우러짐)의 실천으로 한국춤은 인간과 자연, 하늘과 땅의 어우러짐 정신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평화의 논리로서 결국, 서로 다를 수밖에(동양의 사상에서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없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논리이다(한혜리, 2011:201). 작은 우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존재적 인식은 한국춤의 음악에도 나타나 있다. 강박으로 시작한 소리는 연결된 맞물림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순환 속에 흘러간다. 또한, 12박 중몰이 장단이나 12분박의 굿거리 장단 속에서 음들의 연계성과 강약은 농경시대였던 우리의 12달 삶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감각을 상징한 것이다.

解(풀어내는 행위)로서의 한국춤은 풍자와 해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갈등이나 경고와 같이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인간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즐거움(동양사상에서는 樂)은 산출된 즐거움이 아닌 윤리적 즐거움을 말한다(한혜리, 2011:202). 한국춤에서는 ‘푸는 일’, 곧 ‘풀이’가 많다. 제석본풀이, 칠성풀이, 성주풀이, 살풀이춤, 풍물굿의 진풀이나 뒤풀이도 같은 맥락이다. 풀이 문화의 미학은 풀이를 통해서 삶의 생명 본성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이도원, 2004:179).

中(균형 잡음·규칙과 규약의 준수)은 상호작용의 관계로 어느 한쪽으로는 기울어짐 없이 영향력이나 강요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는 예술가의 기본 정신이자 태도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 정신이자 자유 정신이다.

위에 제시된 한국춤의 사유체계는 한국춤의 다섯 가지 생태적 의미인 ①자연스러움 ②어울림 ③신명 ④해학 ⑤심신에 경건한 긴장(이유진, 2014:78-80)에 스며들어 있다. 한국춤의 자연스러움은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和) 정신으로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빚어냈다.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이 보여주는 한국춤은 흥과 열이 조화된 신명을 거쳐 부정적 현실을 정신적 여유로 넘기는 해학과 풀이문화로, 심신에 경건한 긴장을 부여하는 예의는 균형잡음·규칙과 규약의 준수(中)의 정신과 연결된다.

굴신과 상승, 그리고 모으고 펴는 엇갈린 움직임에서 관객들은 소리와 움직임이 하나되고 이 결합에서 천지가 하나로 만나 인간의 세계가 완성되는 모습을 느낀다. 한국인의 사유 체계 안에서 해석된 무용은 형식 없는 형식으로 해체이면서 동시에 어우러짐이다. 즉, 결합(짜지움)의 완성인 어우러짐(和)의 현실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우러짐의 내면에 중(균형잡음)이 있다. 이것은 해(풀어버림)의 행위인 무용에서 무용수가 춤에 몰입하지만 장단을 잊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규약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의 풀어버림의 행위로서의 예술에서는 절제된 논리(구성)와 승화된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만 보고 듣는(관객)이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절실할 수 있다고 말한다(한혜리, 2011:200). 이처럼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는 신명 나는 가락과 역동적인 몸짓의 흥으로 구현되는 한국춤의 특성으로 표현된다.

2. 생태의식과 몸

생태적인 몸은 생태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연과 몸은 상호작용의 관계로 엮어있는 관계이며, 춤을 추는 몸은 작은 자연이기도 하다. 오레지나(2011a)의 연구에서 생태적 신체는 자연의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몸관에 기초하며, 우주에 질서가 있듯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 그 몸의 질서대로 몸의 질서를 회복하여 얻게 되는 온전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의미하며(오레지나, 2011a:50), 이시다는 동양의 신체를 흐르는 신체, 곧 유동하는 유체(流體)로 파악하고 있다(이시다 히데미, 1996). 춤추는 몸은 춤추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반영, 절제와 즉흥의 미학, 그리고 공간을 우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열림 감각이 어우러져 표출되는 통찰의 세계이다.

한국춤은 동작구성에 있어 기의 흐름에 주목하고 한 동작과 다음 동작의 연결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흘러 음양 흐름의 변화처럼 연결된다. 그 결과 한국무용은 감으면 풀리고, 굽히면 펴고, 자연스럽게 중단 없이 이어져서 동작 구성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이게 되는 것이다(이유진, 2013:68-69). 이러한, 한국춤의 내재적 특질에 대한 실제 신체의 사용과 에너지의 흐름은 굴신, 절, 발의 자세, 팔의 자세, 어깨춤, 등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몸은 상호작용의 관계로, 한국춤은 몸에 흐르는 생명력, 즉 기에 주목한다⁵⁾. 예

5) **희남자** 정신훈에서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머리가 등근 것은 하늘을 본받고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았다. 하늘에는 사계, 오행, 아홉 영역(여덟 방위와 중앙), 360일의 날짜가 있으며 사람에도 또한 사지, 오장, 아홉 개의 구멍, 360의 관절이 있다. 하늘에는 풍우, 한서가 있으며 사람에게도 취여(取與)와 희로(喜怒)가 있다”. 자연에는 24 절기가 있듯이 신체의 상중하 세부분에 여덟신(神)씩 합계 24신들(二十四眞)이 있다. 24절기는 하

를 들면, 하체의 기운을 움직이는 행위가 한국춤의 걸음걸이이며, 구체적으로는 발바닥의 경락을 자극하는 일이다. 춤 속의 기의 움직임은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호흡의 흐름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 춤에서 호흡은 음양의 흐름의 변화를 본받는다. 음으로 춘다는 것은 내 안의 기운을 모아 추는 것이고, 내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관조의 과정이다. 걸음로의 절제로 인하여 안으로 향하는 축적이 일어나며 이 축적이 응축함을 이루어, 한국춤을 무겁게 보이게 하고, 끈기와 정중동으로 표현된다. 양으로 춘다는 것은 내안의 기운을 남김없이 외부로 발현시키는 것이다. 에너지를 뿜아내는 쟁점은 몸에 있고, 내 몸의 단전이 몸의 가락(끝까지) 구석구석 기를 뻗치고 있어 뿌리는 사위가 많았다. 무거우면서도 고정되지 아니하고 물이 흐르듯 가볍게 흘러가며, 응축됨이 절정일 때 호흡은 풀어지며 또한 그 풀음은 동시에 축적을 위한 비움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양의 호흡은 승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승무는 느린 이동과 함께 낮은 자세로 단전에 무게를 실어 움직이는 하반신의 움직임과 몸을 확장시켜 크게 뻗어내는 활기차고 박력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팔의 움직임, 호흡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발, 이를 거쳐 머리와 팔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몸놀림을 통해 정중동의 미가 배어져 있다. 승무의 시작과 끝은 몸을 굽혀 절을 하는 예의 몸짓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절은 지금의 문화 구조는 직선구조로 꺾이고, 막히는 결과는 가져 오는데 절에 나타나는 둥근 곡선의 구조는 살려냄과 치유의 의미로 생명의 근원적 요소를 볼 수 있다. 절에서 비롯된 굽은선(곡선)의 구조는 민속춤에서도 마찬가지로, 춤사위의 곡선 구조와 연결된다. 염불장단의 춤사위는 긴 호흡을 통해 끈기 있고 진중한 무게를 몸에 실어 내면으로부터 호흡을 장삼가락까지 확대시켜 춤춘다. 타령은 장단의 특성에 따라 호흡의 맺고 푸는 원리를 이해하고, 절제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몸놀림을 펼칠 수 있다. 굿거리의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긴 호흡으로 다양한 동작으로 펼쳐 보임으로서 정중동의 적절한 조합을 보여주며, 북은 가락의 기교적 변주를 통해 몸과 합치되는 조화로운 북소리를 빠르고 경쾌하게 표현한다.

이와 같이 한국춤의 생태적 몸은 유기적인 몸의 움직임에 의한 표현이며, 생태적 사고는 생태적 몸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놀이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 요소 즉, 음악, 악기, 무대, 미술, 춤도구, 의상 등 다양한 요소에도 전승되고 있다.

늘의 기의 순환의 단락을 나타내고 있듯이 신체의 24신도 자연의 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 덩어리인 몸은 자연의 음양 흐름의 변화를 본받아야 한다. 음양은 하늘과 땅의 법칙이자 모든 것이 작용하하는 크고 작은 원칙이며 모든 변화의 근원이며 살리고 죽이는 근원이다.(이시다 히데미,1987:97-150)

IV. 결론

생태사회에서 한국춤을 생태무용으로 접근하는 작업은 특정한 춤의 유산이 개인과 대중의 인식의 지평을 형성하는 잠재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태적 사고는 한국춤의 생태적 몸을 통해서도 체험이 가능하다. 생태문화에 적합한 인식을 위해 생태적 사유 방식과 한국춤은 필요하다.

한국춤은 생태 문화권에서 전승되는 춤이다. 한국춤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에 비해 학문적 체계로 논의되기는 쉽지 않지만, 대신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구하는 많은 깨달음의 계기를 줄 수 있다.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를 통해 삶 또는 춤 속에서 망각했던 자연의 질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질서는 과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하늘과 땅이 보여주는 완만한 변화와 반복을 보여준다. 춤은 이런 변화의 반복 속에 참여 하고, 반복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사회에서 지향하는 생태무용(ecodance)는 전승되는 한국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적 사고에 기대어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를 마련하고, 생태적 사고를 기반으로 생태적 몸에 대하여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태적 사고는 개체론적 주-객 이원론을 극복하고, 물질과 정신을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깨달아야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생태적 사고는 자기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평을 제공한다.
- 동양의 생태적 사고는 모든 존재의 유기적 연결 구조 위에 도덕적 속성을 부여한다.

한국춤의 생태적 사고는

- 한국춤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에 기대어 사는 생태학적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 생태문화권의 사유체계에서 춤의 생태적 사고란 인격 완성의 경지이고 그것은 개인의 춤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이다.
- 한국춤의 자연스러움은 자연과 인간의 어루어짐(和) 정신으로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빚어냈다.
-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이 보여주는 한국춤은 흥과 열이 조화된 신명을 거쳐 부정적

현실을 정신적 여유로 넘기는 해학과 풀이문화를 빚어냈다.

- 심신에 경건한 긴장을 부여하는 예의는 균형잡음-규칙과 규약의 준수(中)의 정신과 연결된다.

한국춤의 생태적 몸은

- 생태적인 몸은 생태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연과 몸은 상호작용의 관계로 엮어있는 관계이다.
- 춤 속의 기의 움직임은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호흡의 흐름으로 보이며, 호흡은 음양의 흐름의 변화를 본받는다.

오늘의 생태의식에서 전승되는 한국춤은 자연의 전일성을 체험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역량을 신장시킨다. 따라서 한국춤에 대한 시대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옥희(2012), “커뮤니티댄스 실행 모델 생태감성 무용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71-85.
- 박지영(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병(2006), **한국의 생태사상**, 경기:돌베개.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3집**, 51-60.
- _____ (2011a),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권 제2호**, 39-51.
- _____ (2011b),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4집**, 25-33.
- 유미희(2002), “한국춤에 나타난 생태여성주의 성향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69-90.
- 이도원(2004), **한국의 전통생태학**, 서울:사이언스북스.
- 이유진(2010), “살풀이춤에 내재된 생태적 의미”,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3권**, 103-116쪽.
- _____ (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제2호**, 47-66.

- _____ (2014), “한국춤에 내재된 생태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2호**, 73-84.
- 이시다 히데미(1987), 이동철(역, 1996), **기 흐르는 신체**, 서울: 열린책들.
- 임희선(2012), “생태 예술교육 사례연구 : 생태무용의 교육적 기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민환(1997),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서울: 예문서원.
- 정은주(2011), “동양의 생태적 몸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5권**, 65-77.
- 한혜리(2011), **무용사색**, 서울: 한학문화.
- _____ (2013),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 방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제2호**, 29-45.
- Capra, F.(1975),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김용정(역, 1995),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범양사.